

쓸쓸하고 낯선 한강 풍경

내달 14일까지 노충현 개인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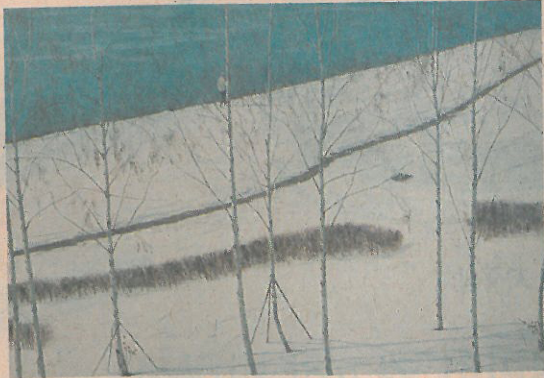
■ 한강변 풍경으로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. 아침저녁으로 둔치를 산책하거나, 여름밤 무더위를 피해 강변에서 강바람을 즐기는 풍경은 아닐까. 서울시민들이 자연과 대면하는 특 트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풍경을 떠올리기 쉬운 것이다.

그러나 '한강 풍경'을 그리는 노충현 씨의 작품 속 한강은 익숙하면서도 모호하고 또 낯설다. 그는 밝고 맑은 낮보다 비가 내리거나 어두운 밤을 즐겨 그린다. 그의 작품 속 서울풍경은 색상을 덜어낸 듯 음영이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, 비 내리는 풍경처럼 눅눅하고 흐릿하다. 작가 스스로 "햇빛 찬란한 여름과 봄의 한강은 못 그려봤다"고 말한다.

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 1관에서 7월 14일까지 열리는 개인전을 통해 노 씨는 한강 그림을 통해 서울의 계절과 생활을 담아낸다. 개인전 제목은 '살풍경'. 몸이 쓸쓸하고 고요한 정경이라는 의미다.

전시장 1층에는 밤 그리고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이, 2층에는 장마철의 강변 풍경이 펼쳐진다.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스산한 계절과 날씨와 더불어 불분명하고 복합적인 도시풍경으로 작가 특유의 재해석이 이뤄진 것.

작가는 잠실에서 여의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촬영



한 사진을 토대로 한강변을 재구성했다. 한강시민공원의 수영장, 편의점, 119구조대와 쪽섬지구의 방치된 상업시설, 망원동 유수지를 담은 25점의 회화는 구체적인 현실 풍경이면서 가상공간처럼 몽환적인 환상을 불러일으킨다. 강변의 메마른 겨울나무들 사이로 한 사람이 흰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'산책' (사진) 등 전시작은 대부분 두 세 가지 색상을 담고 있다. 강변 나무들이 물에 담긴 붉은 색조의 장마철 풍경 '물과 나무 3', 접힌 파라솔과 수영장 등 직선 위주의 '여름의 끝3'과 눈송이가 몽글몽글 드러나는 '유수지의 밤' 등 단색조의 이미지는 관람객의 추억과 기억을 일깨운다.

작가는 2005년의 첫 개인전 '살풍경' 이후 2006년 동물 없이 동물원의 우리를 주목한 '자리' 및 군사독재시절의 역사적 시간을 상징한 '실밀실'을 발표했다. 신세미 기자